

암 선고 받고 불교환경운동 더 매진

‘불교·생태·방송’을 평생 화두로 ‘1천 사찰’ 원력... 현재 602곳 참배

1990년대 초 ‘생태’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불교계에서 ‘나홀로 환경운동’을 벌여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57). 이 땅의 사찰과 산으로 강과 바다로, 뿔뿔이 떨어진 곳을 찾아 나서고 있는 그가 지금 아프다. 2002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도 완쾌를 위해 도전했던 그것이지만, 병이 다시 도졌다. 2차 항암치료로 머리가 다 빠져 버렸다. 암이 재발할 정도로 몸이 상한 까닭은 뭘까?

9월 22일, 서울 가회동 사단법인 보리 사무실. 스무 해 넘게 이끈 방송모니터팀 정기토론회에서 그는 가쁜 숨을 가누며 3시간 내내 부지런히 말씀을 펼쳤다. “제발, 쉬엄쉬엄하시라”며 모니터팀 간사가 간곡하게 말하며 소중했다. “모니터링은 단순히 남의 잘못을 짚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고치는 과정입니다. 수행과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아플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아프지 않은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운동가다. 20여년 넘게 사찰생태 보존활동과 방송모니터모임을 이끌어오다 병에 걸렸지만, 그는 여전히 ‘불교’ ‘생태’ ‘방송’이란 삶의 3가지 화두를 움켜쥐고 있었다.

“은사였던 광덕 스님은 제게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설한 보현행원은 단연 원왕(願王)’이라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행위를 세우란 그 말씀이 지금 제 믿음의 밑천이 되었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서도 10년을 기억하는 ‘108사찰 자연생태기행’ 원력을 세우고 분기 32면에 격주연재하고 있다. 4대 종교 가운데 처음으로 언론감시법 인체인 사단법인 보리도 출범시켰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역설적으로 다시 출가하는 기분이었지요. 아예 새롭게 ‘부처님’과 은사스님에게 보은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서원이 생기더군요. 그때부터 제 삶의 화두들을 머리로 집착해 일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발과 몸으로 견고 부딪치면서 믿음과 원력을 키워왔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폐암 선고, 그럼에도 그는 보름에 한 번씩 찾아 간 사찰에서 이를 밤을 보냈다. ‘108사찰생태기행’ 대상 산사 가운데, 현재 62곳의 탐사를 마쳤고, 그간 써온 기행보고서는 200자 원고지로 무려 4200매가 넘는다. 또 사찰 곳곳을 담은 현장자료사진은 3천여 컷이나 된다. 또 방송감시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왔다. MBC의 불법 선교프로그램인 ‘행복로의 초대’를 중단시킨 일부터 ‘주일(主日)’이란 종교용어의 방송광고 사용 금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바른 방송을 통한 호법활동을 펼쳐왔다.

하나의 길도 가기 힘든 법인데 세 갈래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재일 소장. 김 소장은 요즘 필생의 원력을 회향하고자 아픈 몸을 지독하게 다잡고 있다. 그것은 ‘전국 1천 사찰 참배하기’. 1998년부터 시작한 이 원력은 마음속에 1천분의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것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현재 2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의 얼굴에는 늘 생동감이 가득하지만 하다.

로, 지금까지 602곳의 사찰을 발품 팔아 찾아갔다.

“앞으로 마음에 모실 부처님이 많을 겁니다. 못 찾긴 나무가 끝내 산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고 원력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글·사진=김철우 기자

‘사비시대’서 포교원력 실천하는 단체들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산철교 보수 공사 당시 울지로3가에서 흥대입구까지 한동안 지하철을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지하철에 걸린 ‘자비의 말씀’을 읽고 저의 업을 알게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 무임승차비를 포함한 얼마간의 돈을 보냅니다...”

지난 2002년, 한 시민의 참회편지가 서울 지하철 울지로3가 역장에게 배달됐다. 편지봉투 안에는 그동안 무임승차한 비용을 내고 남을 돈도 들어있었다. “여분의 돈은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더 붙이는데 써 달라”는 말과 함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해자), 일반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쉽고도 재미있게 전하려고 지난 1999년 창립했다.

교육관 지하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를 봉행한다. 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공간이지만, 장애인불자들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소중한 법당이다.

1988년 수화교육을 받은 불자들이 모여 ‘장애인에게도 불법을 널리 알리자’는 원력으로 자원봉사단체를 발족한 원심회. 당시 이웃 종교계는 장애인 선교에 열심이었으나 불교계에는 장애인 포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한 원심회는 연중 내내 수화교육을 지도하고 수화강사를 파견하면서 불교계의 유일무이한 봉사단체로 성장했다. 1997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불교교과 비디오테이프 600개를 제작해 무료 보급했으며 1998년에는 <법화경>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도 발간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법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전국 지하철역사에 '자비의 말씀' 설치 | 수화교육·점자 도서 발간 등에 앞장 | 한글대장경 이어 인터넷 불사 '비지담'

풍경소리는 초창기에 서울지하철공사 115개 역사를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사에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게시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지금은 전국 639개의 지하철과 철도역에서 1915개에 이르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지하철 포교’를 회향한 풍경소리. 하지만 그간 걸여온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자비의 말씀’ 사업을 시작한 지 수 개월만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 게시판이 늘어나자 게시판 운영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한 개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비용은 다름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관리비를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매달 400여만원의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후 포교기금 마련 모금행사와 전사회 등으로 어렵게 위기를 넘긴 풍경소리는 2001년 세계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운행하고 매년 소아암환우들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영역을 넓혀가며 군부대·학교·병원 등으로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심회(회장 김장경)는 서울 조계사

그간 배출한 수감생만 1천여명이 넘는다. 또 최근 수화불자 동영상 제작하고 점자부 경전번역을 계속하는 등 수화포교의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역경사업에만 10억 42만 한 킬을 걸여온 동국역경원(원장 윤희도 포교원력을 실천해 온 단체. 그야말로 우리시대의 구마라지이라 부를 만하다. 1964년 윤희 스님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후 2001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대장경 318권을 책으로 완역했다. 이는 100여명의 역경위원과 후원회원들의 원력이 맺은 결실이다.

한권의 한글대장경 제작에 3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사업이었다. 전체 경비 가운데 60%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며 힘겹게 역경사업을 마친 동국역경원 사립들은 오는 2009년 원료를 목표로 현재 개정판 작업과 인터넷 대장경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최철환 편집부장은 “많은 사람들의 원력과 믿음 덕분에 대사업에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비 기자

“부대 내 폐사지 복원·통일탑 건립” 願

군포교 40년, 장병들에 늘 ‘기도하라’ 권유 JSA내 유일한 군법당 ‘영수사’ 개원



이재성 거사

군포교에 평생을 바친 이재성 거사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장병들의 이름과 소속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

올해 나이 일흔 둘. 불자 군인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재성 거사는 여전히 ‘현역’이다.

20대에 이미 군복무를 마쳤지만, 오늘도 전국 곳곳의 군법당을 누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40여년간 열

마나 많은 군법당을 다녔는지 그 자신조차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군포교 열정은 뜨겁다.

국군의 날을 앞둔 9월 29일 만났을 때도, 이 거사는 부지런히 다음 위문계획을 잡고 있었다. 전국의 각 부대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어느 부대 먼저 찾을까’ 고민하는 그의 얼굴에서 군포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난다.

“장병들은 맛있는 간식거리가 먹고 싶어진다면 한 번씩 저한테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옵니다. 그렇게 인연 맺은 장년들이 불자가 되어 저를 떠를 때면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처음엔 소박했다. 음식을 싸 들고 찾아가기만 했다. 하지만 군위문 횡수가 늘어갈수록 장병들이 고민상담을 해

때마다 부처님 법을 들려줬고, 군법당으로 이끌며 ‘절하고 기도하라’고 다독거렸다. 또 군법당이 없는 부대에는 도량을 만들도록 설득하고 주머니를 털어 불사기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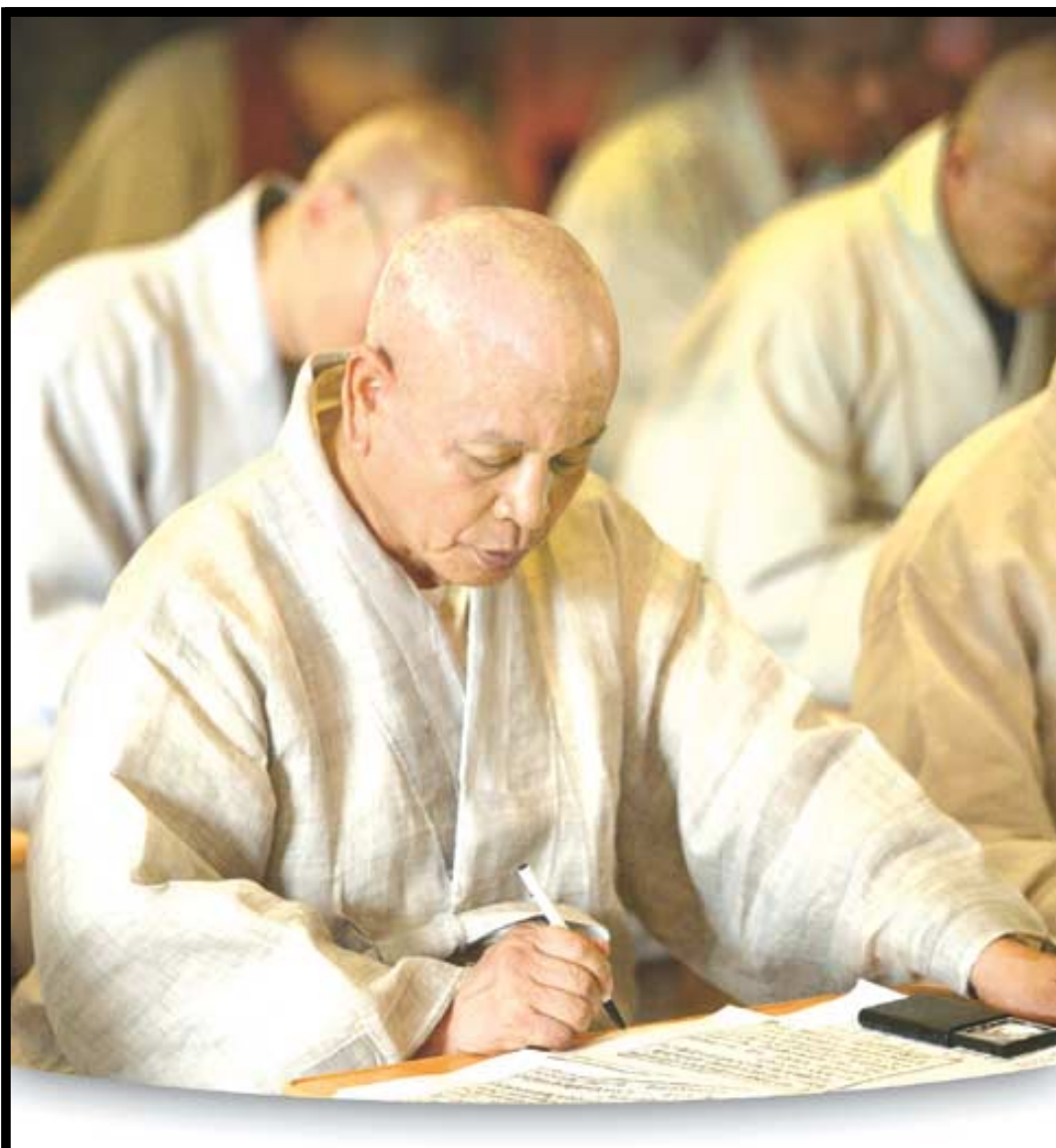
특히 이 거사가 정성을 쏟은 것은 최전방의 군법당들. 지난 2004년 12월 18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JSA경비대대(캠프 보니파스) 내에 개원한 군법당 ‘영수사’도 이렇게 탄생했다. 미군이 주둔한 까닭에 교회나 있던 JSA경비대대 내에 비로소 군법당이 생긴 것.

이 거사는 경비대대가 2004년 국군에 이양된다는 정보를 듣고 2002년부터 국방부와 군종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끝에 ‘50여명의 막사를 군법당으로 사용하라’는 허가를 이끌어 낸 것이다. 하지만 큰 결실이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사람이 전쟁으로 불에 타고, 동포와 총부리를 겨누며 군복무를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때 부처님을 만났고 매달렸습니. 부처님의 자비심에 기대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 나니, 이제는 제 뒤에 남을 젊은이들이 생각나더군요.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어도 법당이 없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부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때부터 ‘군법당을 많이 세우는 일’을 평생의 원력으로 세웠습니다.”

JSA 내에 영수사가 자리잡으면서 그 원력도 이제 한시름 놓을만하건만 이 거사는 다시 새로운 원력을 세웠다. 폐사지를 군법당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 거사는 “전란에 소실돼 폐사지로 남은 파주 도라산 영수암(永守庵)을 복원하는 일이 여생의 원력”이라며 “최전방 군부대 내의 폐사지를 복원봉사해 통일기원 대담을 세우고 싶다”고 굳게 말했다.

글·사진=이은비 기자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 9. 16 ~ 11. 25

經典

수행을 통한 깨달음

지관 스님 금강경

위용 스님 육조단경

혜남 스님 화엄경

웅가 스님 아미경

지안 스님 열반경

각성 스님 해심경

백운 스님 법화경

우림 스님 정토삼부경

동광 스님 원각경

월은 스님 능엄경

봉선사 강설대법회
11월25일 보살계수계법회
031) 527-1951~3

법회 동영상 중계는 bongsunsa.net과 buddhanews.com에서, 법문 요지는 매주 '현대불교' 24~25면에 소개